

# 지역특화형 비자 인구감소 전지역 추진

### 도, 지역우수인재 703명 쿼터 확보... 성장동력 기대

전북특별자치도는 법무부에서 지역 사회의 인구감소 대응과 지역경제 활력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지역특화형 비자 사업' 공모에 도내 인구감소지역 10개 시군이 모두 선정됐으며, 지역우수인재 유형 703명의 쿼터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지역특화형 비자 사업 지역우수인재 유형은 국내 전문학사 이상 졸업, 한국어 능력 3급 이상 등 일정 기준을 충족한 외국인에게 인구감소지역의 특화업종에 취업 및 거주할 것을 조건으로 도지사의 추천을 통해 장기거주가 가능한 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이번 공모 선정을 통해 작년에 시범

시행된 정읍시, 남원시, 김제시, 순창군, 고창군, 부안군 6개 시군과 함께, 진안군, 무주군, 장수군, 임실군 4개 지역이 추가로 선정됨에 따라, 도내 인구감소지역 모든 지역에서 우수한 외국인의 유치와 안정적인 정착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 예상된다.

전북자치도는 작년 시범사업 기간에 전국 최대 규모의 400명을 배정받아 적극적으로 취업박람회, 기업 설명회 등을 통해 외국인 우수인재를 모집했으며, 그 결과, 배정된 쿼터를 6월에 조기 완료했다.

지역특화형 비자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한국어 능력 3급 이상이 필수로 요구됨에 따라, 강의비·교재비 등을 지원하여 지역특화형 비자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외국인의 한국어 능력 자격증 취득을 지원했다.

이와 함께, 지역특화형 비자를 통해 전북자치도에 유입된 외국인을 대상으로 용접 기술, 자동차 부품 실무, 식품 현장 위생 관리 등의 현장 교육을 시행해 직장 생활에서의 안정적인 적응을 유도했다.

지역특화형 비자 발급자 및 기업을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추진한 결과, 외국인의 만족도는 70.3%, 기업의 만족도는 84.63%를 기록했으며,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외국인과 기업 모두 한국어·직무 관련 자격증 등의 교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다수였던 점을 고려해, 외국인 정착 지원 거점기관인 전북국제협력진흥원을 통해 한국어와 기업 현장에서 필요한 용접, 기계차 등 직무역량 강화 교육을 확대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올해부터는 재외동포도 지역특화형 비자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도지사의 추천이 필요함에 따라, 외국인 취업박람회 등을 추진 시 재외동포에게도 적극적인 홍보와 참여를 유도해, 재외동포 또한 유입을 확대하고 지역에 안정적인 정착을 유도해 나갈 예정이다.

나혜수 교육소통협력국장장은 "외국인이 지역특화형 비자를 발급받게 되면 가족까지 동반 거주·취업할 수 있어, 지역 경제 발전을 위한 안정적인 성장동력이 창출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지역에 유입된 외국인이 전북특별자치도의 일원으로서 성장하고 지역사회에 적응할 수 있게 한국어와 기술 교육 등을 적극 지원해 나가고 정착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추가적으로 발굴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재훈 기자



도립여성중고교는 지난 31일 오전 10시 학교 강당에서 제24회 졸업식을 개최했다.

## 도립여성중고교서 만학의 꿈 실현

### 늦깎이 모범생들 35명, 졸업장 받아

전북특별자치도립여성중고등학교(이하 도립여성중고교)에서 만학의 꿈을 이룬 늦깎이 모범생들 35명이 빛나는 졸업장을 받아들었다.

도립여성중고교(교장 허진옥)는 지난 31일 오전 10시 학교 강당에서 제24회 졸업식을 개최했다.

졸업식에는 국주영은 도의회 의장, 박주용 부교육감 등이 참석해 만학도들을 축하하고, 김관영 도지사는 영상으로 축하 인사를 전했다.

이번에 졸업한 35명(중 15, 고 20)은 가정형편, 시대적인 상황, 건강 등 어쩔 수 없는 이유로 학업의 시기를 놓쳤으나, 도립여성중고교를 통해 늦게나마 다시 배움의 기회를 얻어 누구보다 값진 졸업장을 받게 됐다.

나이는 숫자일 뿐이라고 여기하는 졸업생 평균연령은 중학교 65세, 고등학교 67세로 나타났다.

이날 졸업식에서 도지사 표창(2명), 도의회 의장상(2명), 교육감상(2명), 학교장상(2명), 동문회장상(2명), 3년 개근상 등 35명 전원이 수상의 기쁨을 누렸으며, 고등학교

졸업생 20명 중 16명이 대학에서 학업의 꿈을 이어가기로 해 대학 진학 장학금을 받았다.

도립여성중고교 총동문회에서 운영하는 새인장학회(회장 정연화)에서는 대학진학 5명, 고교진학 14명에게 소정의 새인장학금을 전달했다.

또한, (재)전북은행장학회(회장 이사장 김영구)는 지난 2011년부터 매년 대학 진학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원해 왔으며, 올해도 졸업생 10명에게 50만원씩 총 500만원의 장학금을 지원하며 축하의 말을 건넸다.

김관영 도지사는 영상 축사를 통해 "도전하면 결국 성공한다"는 '도전경성'을 우리 졸업생들이 몸소 증명해 내셨다"며, "평균 나이가 66세라고 들었는데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고, 꿈은 늙지 않는다는 말의 힘을 모두에게 보여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고 축원했다.

한편, 도립여성중고교는 오는 2일까지 2024년 신입생 60명(중 30명, 고 30명)을 모집한다. /김재훈 기자

## 전북자치도 보건환경연구원 설 연휴 비상대응체계 운영

전북특별자치도 보건환경연구원(원장 김호주)이 설 명절을 맞아 연휴 기간(9~12일) 감염병 발생에 신속한 대응을 위해 비상 대응팀을 운영한다고 지난 31일 밝혔다.

비상 대응팀은 2인 1조 총 28명으로 구성되며, 감염병 발생 시 질병관리청 및 도·시·군 보건소 등 유관기관과 비상 연락망을 통해 정보를 공유하고, 신속한 검사체계를 감염병 원인 규명 및 확산방지 등 비상방역태세 유지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특히, 집단 식중독 발생 신고 시 인체 및 환경 검체에 대한 신속 검사 및 결과 통보를 진행해, 전파차단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다.

김호주 보건환경연구원장은 "설 연휴 기간에도 법정감염병 및 집단 식중독 발생에 대비한 분야별 비상 대응 체계를 유지하여 도민 및 고향을 찾은 귀향인들이 안심하고 건강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전국적으로 겨울철 노로바이러스 감염으로 인한 집단식중독이 꾸준히 발생하고 있어 연휴 기간에 손을 수시로 깨끗이 씻고, 생굴 등 음식을 충분히 익혀 섭취하는 등 개인 위생수칙 준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재훈 기자

개인방역수칙 생활화  
감염병 예방의 지름길

## 귀농부터 창농까지... 전북자치도, 원스톱 교육

### 가공 등 4개 분야 5104명 대상

전북특별자치도 농식품인력개발원에서는 농업·농촌을 이끌어갈 전문 농업인력 육성을 위해 2024년 농업인 교육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지난 31일 밝혔다.

교육은 올해 1월 15일부터 귀농귀촌, 농식품 유통, 농식품기업·가공창업, 스마트팜 등 4개 분야 106개 과정 5,100여명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다.

먼저 귀농 교육은 영농경력 1년 이하 예비 귀농인들을 위한 창업형, 부모님의 가업을 잇는 후계농, 전원생활을 희망하는 귀촌인 등으로 유형을 구분해 교육을 운영한다.

올해 인력개발원에서 새롭게 선보이는 과정은 농식품 유통분야의 변화하는 트렌드를 반영한 마케팅 능력을 함양을 위해 농식품 빅데이터 분석과 마케팅 활용과 농식품 챗GPT 활용 AI마케팅 과정을 진행한다.

또한 농산물 등 제품 판매시 발생할 수 있는 소비자의 다양한 불만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고객 클레임 대응 서비스 과정과 농식품 법인, 기업들의 신상품 개발 기획 과정을 운영하여 농업(법)인들이 현장에서 실무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내용으로 교육을 채워갈 계획이다.

농식품 기업 분야는 요즘 활발하게 이용하고 있는 인스타그램, 라이브커머스, 유튜브 등 온라인 마케팅 교육과 법인 설립 절차, 회계, 노무 과정, 사업계획서 작성 등 현장에서 바로 활



전북특별자치도 농식품인력개발원에서 교육생들이 실습 교육을 받고 있다.

용할 수 있도록 실무 중심 교육이 추진된다.

농식품 가공 분야는 장류, 식초 등 발효, 농산물 가공을 통해 농산물의 부가가치를 향상시킬 수 있는 기법과 제품 표시, 위생관리 등의 법을 지식을 포함하여 진행된다.

농업인들의 식품분야 전문성 향상을 위해식품 가공 기능사, 떡 제조 기능사 등 전문 자격증 취득과정도 운영된다.

스마트팜 분야는 입문, 온실 관리, 토마토·딸기·아스파라거스·상추 등 작물별 재배기술과 농작업시 노동력 절감 및 효율성 증대를 위한 콤팩트, 전기 용접 등 농기계 교육도 실습

중심으로 추진된다.

최재용 전북특별자치도 농생명축산식품국장은 "매년 농업 현장의 다양한 교육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농식품인력개발원의 분야별 맞춤형 교육은 귀농(촌)부터 창농까지 농업에 관련된 종합적인 내용을 한자리에 무료로 배울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며 수요자 중심의 농업인 교육을 통해 전북특별자치도 농생명산업 수도 육성에 온 힘을 쏟겠다"고 전했다.

농식품인력개발원 교육 신청은 매월 1~15일 거주 읍면동사무소에서 하면 된다.

/김재훈 기자

## 국립임실호국원 '설 맞이 준비 완료'

국립임실호국원은 다가오는 민족의 대명절인 설을 맞아 설 연휴 기간 국립묘지를 방문하는 유가족과 참배객의 편의 제고를 위해 자체 계획을 수립하여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먼저 연휴를 앞두고 주변 환경 전반을 말끔히 단장하고, 방문객의 편의를 위해 셔틀버스 운행계획을 확정하는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온 힘을 다하는 중이다.

또한, 유관기관인 임실관내 경찰서,

소방서, 군부대 및 지자체와 협조해 성묘객이 불편하지 않도록 연휴기간 동안 경찰 및 국군 장병들의 지원을 받아 원내 교통통제 수행 및 호국원 주변 교통정체에 대비하고 있다.

국립임실호국원은 해마다 늘어나는 성묘객들의 원활한 수송을 위해 9일부터 11일까지 3일간 호국원-임실역-임실터미널을 경유하는 셔틀버스를 운행할 예정이다.

/임실=진홍영 기자

"전주매일신문은  
항상 도민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

www.jmaeil.com